

혁신도시 기관들 지역인재 채용비율 달성

올해 의무채용비율 24%
2022년까지 30%로 확대
농어촌공사 등 50% 넘어
한전 12.4%로 지지부진



한전KPS는 최근 나주 본사 본사 빛가람홀에서 신입사원 167명과 '2019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입사식'을 가졌다. 한전KPS는 이 가운데 지역인재 41명을 채용하면서 의무채용 비율(21%)을 넘겼다. <한전KPS 제공>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상당수는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24%로, 지난해 21%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지난해 2018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 18%를 시작으로 매년 3%포인트 이상 확대 오는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갈 예정이다.

이전 지역인재는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학교 소재지가 광주·전남지역이어야 한다. 지난해 2018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1.1%로 359명이 지역인재로 채용됐고, 의무채용률(21%)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채용인원 외 추가 합격 방식으로 충족시켰다.

지난해에는 한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전 공공기관들은 의무채용을 지켰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0% 이상 채용, 지역인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

상 32명 가운데 16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해 채용률 50%를 달성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제외되는 연구직·경력직·지역본부지사 부문 등을 빼어난다"며 "이를 제외한 지역인재 채용률은 50%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의 지난해 전체 채용규모는 327명으로, 이중 지역인재는 12.8%에 해당하는 42명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지난해 122명 가운데 지역인재 63명(50.8%)을 뽑으며 과반수를 넘겼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해 3명 중 1명 필(16명 중 5명)로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지난해 22.4%(58명 중 13명)에서 지난해 24.1%(54명 중 13명)으로 1.7%포인트 올랐다.

예산 72조원을 거느리는 국내 최대 규모 공기업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총 1091명을 채용하면서 136명을 이전지역 인재로 채웠다. 비율로 따지면 12.4%이다.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나주에 동지사를 둔 2014년 6.9%를 시작으로 2015년 10.8%, 2016년 8.7% 등 10%를 밑돌았다.

지난 2017년에는 1574명 가운데 245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면서 채용률은 15.5%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지역인재 채용률이 12.4%로 감소했고 지난해 3분기 채용률도 이를 유지했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와 한전KDN은 지난해 의무채용률을 넘겼다. 한전KPS는 신입사원 167명의 24.5%인 41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고, 한전KDN 신입사원 148명의 22.9%(34명)가 지역인재였다.

한전KPS는 전년 지역인재 채용률 21%에 이어 상승세를 보였다. 한전KDN은 지난해 2018년 196.5명(정규직 전환된 단시간 근무자 포함) 가운데 46.5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며 채용률 23.6%를 기록했지만 이듬해 채용규모가 줄면서 지역인재 채용률이 소폭 감소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지난해 10월 기준 27.8%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혁신도시 기관 지역 농산물 매출 3억원 돌파

전년비 113%·1억 6500만원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농산물 공급 현황

| 공공기관 | 2018년 | '19년8월 |
|----------------|--------|--------|
| 1 전력거래소 | 1000 | 3700 |
| 2 인터넷진흥원 | 890 | 2200 |
| 3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410 | 1400 |
| 4 농어촌공사 | 960 | 3600 |
| 5 농촌경제연구원 | 1200 | 3300 |
| 6 우정사업정보센터 | 3800 | 3700 |
| 7 전파연구원 | 280 | 1000 |
| 8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880 | 2700 |
| 9 콘텐츠진흥원 | 2000 | 2800 |
| 10 한전KPS | 2900 | 5700 |
| 11 방송통신진흥원 | | 150 |
| 12 사학연금 | | 100 |
| 1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95 |
| 14 한전KDN | | 160 |
| 총액 | 1억4000 | 3억1000 |

<자료:국토교통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4곳에 대한 지역 농산물 매출액이 지난해 3억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혁신도시 상생협력 우수사례' 책자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에 공급된 지역 농산물 매출액은 3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018년 매출액(1억 4500만원) 보다 113.4%(1억6500만원) 증가한 수치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전남도, 나주시, 나주시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은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급식 지역농식품소비확대회의'를 8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14개 공공기관은 지역 농산품을 사용하기로 협의했고 구내식당 담당자 및 영양사가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나주시는 먹거리 전담 부서인 '먹거리계획과'를 전국에서 처음 신설하고 '나주시 지역 농산물 공급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농식품 사용을 도왔다.

혁신도시 기관 지역 농산물 사용이 크게 늘어난 데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지역 농산물 공급확대협약'이 촉매제로 작용했다.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은 구내 식당 식재료뿐만 아니라 행사 기념품 및

명절 선물 등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로컬푸드 생산·가공 체험 행사'를 열고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중·소 농가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조직화했다.

나주시 지역 농산물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2018년 상반기 2곳에서 하반기 10곳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지역 농산물 사용 공공기관은 14곳으로 늘었고 월 평균 매출은 지난해보다 10배 편 4400만원을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중기 무료 정보보호 컨설팅 확대

보안장비 6종 무상 지원도

한전KDN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정보보호 컨설팅을 확대했다.

7일 한전KDN은 최근 빛가람에너지밸리 협약기업인 중소기업 5곳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보호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보안컨설팅'은 지난해 2018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현실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기존 2개 부문에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수준진단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 사전진단 ▲기업제품 보안평가 ▲기업 핵심인력 보안교육 등 5개 부문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컨설팅 외에도 방화벽, 스팸메일차단솔루션 등 6종의 보안장비를 무상 지원했다.

한전KDN은 참여 기업을 늘리기 위해 에너지밸리 협약기업 100여 곳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7553억원 융자 지원

31일까지 지원 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달까지 7553억원 규모 '2020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자금은 농수산식품 수출자금, 식품의식종합자금,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등이 있다.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2.5%, 일

반체 3%)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농수산물을 수출하거나, 국산 농산물을 구매·가공·유통하는 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서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공사 지역본부에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사업'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수출 효자 콘텐츠' 게임...2019 상반기 수출액 70% 차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사회복지협의회 1차 지역심사를 거쳐,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받았다.

이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콘진원, 2019 동향분석 보고 매출 3.1%·수출 6.4% 증가

2019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1%, 수출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2019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9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매출과 수출 등 주요 산업통계를 잠정 집계하고, 콘텐츠업체의 생산과 소비 등 변화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19년 상반기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8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전 산업 부문에서 증가했으며 만화(10.4%), 지식정보(9.8%), 영화(7.3%) 산업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매출액 규모는 출판산업이 10조 5267억 원으로(18.1%)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방송 8조 8129억 원(15.2%), 지식정보 8조 3302억 원(14.3%), 광고 7조 8104억 원(13.4%), 게임 7조 745억 원(12.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019년 상반기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약 48억 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액 또한 전 산업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캐릭터(28.0%), 애니메이션(24.5%), 방송(19.5%), 지식정보 산업(17.1%), 음악(13.5%), 만화(12.8%) 등 분야 수출액

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게임산업이 여전히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 부문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33억 3033만 달러(69.2%)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캐릭터 3억 8117만 달러(7.9%), 지식정보 3억 2060만 달러(6.7%), 음악 2억 6070만 달러(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 분석보고서'는 콘텐츠 업체 2500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콘텐츠 상장사 122개의 자료를 분석했으며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거시통계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보고서는 콘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